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유통본 현황*

Current Status of Annotation Books Distribution Included in the
Sinpyon-jejong-kyojang-chonglok

최애리 (Choi, Ae lee)**

◁ 목 차 ▷

1. 머리말	3.1 경부 교장본
2. 『교장총록』 수록 교장 유통본 현황	3.2 울부 교장본
2.1 경부 유통본과 조사본	3.3 논부 교장본
2.2 울부 유통본과 조사본	4. 맺음말
2.3 논부 유통본과 조사본	<참고문헌>
3. 간인이 확인된 교장 현황	

< 초 록 >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는 7년의 기간 동안 ‘고려 교장문헌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진행하여 국내, 중국, 일본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주석서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였다. 이에 『교장총록』에 수록된 1,010의 주석서 가운데 현존 유통 주석서는 382부로 확인되었다. 382부는 각국에서 목록에 수록된 주석서가 유통되어 전래되었던 모든 필사본, 판각 인본, 대장경 등의 전체를 조사한 비율로 전체 목록의 38%에 이른다. 이 중 의천과 관련한 간행 기록이 확인된 장소는 76부로 7.5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교장의 주석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 교류되고 연구되면서 불교가 전승되고 교학이 상호 발전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장 비율의 증가는 교장의 완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要語: 신편제종교장총록, 교장총록, 유통본, 교장, 현존본, 의천, 장소(章疏), 주석서(註釋書)

< ABSTRACT >

The 382 copies 38% of the *Kyojang-chonglok* condu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Tripitaka koreana was based on the overall investigation of all the transcribed books, board engraved books, and Tripitaka that were introduced from China and Japan. Of these, the publication records were confirmed were 76 copies 7.5%. As commentaries for published annotations *Kyojang* which was recorded in the *Kyojang-chonglok* have played a role in the mutual growth of Buddhist studies through the exchange and research of Buddhism and the mutual exchange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increase of existing annotations ratio in East Asia can be seen as a meaningful achievement to support the completion of *Kyojang*.

Key words: *Sinpyon-jejong-kyojang-chonglok*, *Kyojang-chonglok*, Uichon

* 이 논고는 2020년 7월 18일(토)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천년의 귀환,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에서 발표한 것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원(aeri76@naver.com)

투고일: 2020년 8월 19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1일
서지학연구, 제83집, 269-289,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269>

1. 머리말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에서는 ‘고려 교장문헌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2012년 3월~2017년 2월의 5년간의 1차 조사를 마치고 2017년 3월~2019년 5월의 2년 3개월간의 2차 사업을 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되었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교장총록』)의 가치는 동아시아에 유통된 불교 교학의 정수가 담긴 주석서는 불교 교학 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을 위한 집단 지식의 전수와 공유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의천의 제종 교장 간행의 정신을 계승하고 동아시아불교와 불교체계 연구에 진일보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교장총록』 수록 장소의 현존 유통본의 조사와 연구를 서지학 및 불교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물로 2019년 9월에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문헌 총람』(전 2책)을 발행했다. 제1책은 전체 1,444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현존본 현황에 대한 서지 및 해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제2책은 1,310쪽 분량으로 학술세미나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과 DB구축 목록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더 나은 대안이 되고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장총록』에 수록된 유통본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교장총록』 수록 교장 유통본 현황

『교장총록』은 경·율·론 삼장을 각권으로 나눈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권의 분류는 불교의 분류의 가장 기본인 경, 율, 론 삼장 구분에 따른 것이다. 각권은 경, 율, 론으로 나뉘고 다시 류강목(類綱目)의 순차 하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각권에는 경명의 아래에는 하위 장소(章疏)를 배치하고 다음으로는 권수(卷數), 찬자(選者)를 기록하고 있다. 『교장총록』 장소의 부수(部數) 및 권수(卷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 제시된 부수와 권수의 정리는 <표 1>과 같다.

부수와 권수의 통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목록의 기술에 있어서 유통된 다양한 판본의 권수를 모두 기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二卷(或一卷)” 또는 “...鈔二卷科一卷”의 표기로 인하여 기준에 따라 부수·권수의 상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80), 72.; 이영자, 『한국전태사상의 전개』(서울: 민족사, 1988), 167.;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6(서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7.;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3), 1.;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28.;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해안, 2011), 172.

<표 1> 『교장총록』 장소 부수(部數) 및 권수(卷數) 변화

구분	卷上(經疏)				卷中(律疏)				卷下(論疏)				전체			
	일반		科 분리		일반		科 분리		일반		科 분리		일반		科 분리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박상국			619	2,675			145	435			322	1,712			1,086	4,822
김두중 최종남	561	2,703			142	467			307	1,687			1,010	4,857		
이영자	561	2,635			142	456			307	1,688			1,010	4,759		
조명기	561	2,586			142	467			307	1,687			1,010	4,740		
林屋友次郎			618	2,702			145	468			322	1,687			1,085	4,857
김성수 박용진	561	2,704			142	469			307	1,692			1,010	4,865		
연구소 (2013)	561	2,706	619	2,706	142	468	145	468	307	1,692	322	1,692	1,010	4,866	1,086	4,866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초기 부수와 권수는 총 1,010부 4,866권이었으나 최종보고서에서는 1,010부 4,880권으로 변화되었다. 『신편제종교장총록』 총람의 기초-전존 현황과 통계와 관련한 학술보고회(2016)를 통해 『교장총록』의 최고본인 일본 경도(京都) 고산사에 소장된 <안원사본>의 교감을 통해 다음과 같이 권수의 변화가 이루어졌다.²⁾ 상세 부수와 권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고려대장경연구소 제시 『교장총록』 부수와 권수

卷上(經疏)			卷中(律疏)			卷下(論疏)			총권수		
部		卷	部		卷	部		卷	部		卷
일반	科분리		일반	科분리		일반	科분리		일반	科분리	
561	621	2,719	142	145	469	307	322	1,692	1,010	1,088	4,880

『교장총록』의 대교 및 교감은 대옥덕성의 『고려속장조조고』에서 대교한 것을 시작으로³⁾ 『대정신수대장경』 권5에 수록된 후⁴⁾ 대부분 『대정신수대장경』을 답습하였다. 2012년 임혜경(2012)에 의해 현존본 3종의 일부 대교가 이루어졌다.⁵⁾ 2016년 박용진은 정보사본(正保寫本, 1645), 원록간본(元祿

2) 박용진,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대교(對校)와 교감(校勘)연구”, 『고려 제종교장 학술조사 4차보고회』, 141-198. 경부(經部)에서 DBno430. 般若心經 義光鈔二卷 科一卷 惠涉述 <安元寫本>校勘: “義光鈔二卷 科一卷 惠涉述 [科一卷: <正保寫本>에 『科一卷』, <元祿刊本>, <大正藏本>에 『결』, <韓佛全本>에 『科一卷』, 案『科一卷』] / DBno437. 般若心經 詒謀鈔一卷 科一卷 已上 智圓述 <安元寫本>校勘: “詒謀鈔一卷 科一卷 已上 智圓述 [科一卷: <正保寫本>에 『科一卷』, <元祿刊本>, <大正藏本>에 『결』, <韓佛全本>에 『科一卷』, 案『科一卷』]. 율부(律部)에서 DBno667. 闡幽口口卷 已上 法明述 <安元寫本>校勘: “闡幽口口卷 已上 法明述 [口口: <正保寫本>에 『鈔二』, <元祿刊本>에 『鈔二』, <大正藏本>에 『결』, <韓佛全本>에 『口一』, 案『鈔二』]”

3) ① 日本 京都 高山寺 安元2年(1176)筆寫本 ② 高山寺 正保2年(1645)筆寫本(永辯書寫) ③ 元祿6年(1693)木板本 / 落下書林 井上忠兵衛 刊行(底本: 寛永1年(1644)에 梶尾 法鼓臺本(運啟書寫) 對校)

4) 底本 ③大谷大學 所藏本과 甲本 ①을 對校한 刊行本.

刊本, 1693), 대정신수대장경본(1928),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1979) 등 5종을 대교하고 교감하며 현존 최고본인 안원사본(安元寫本, 1176)의 정본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⁶⁾ 결락이나 오류에 대한 교감의 한계를 피력하며 지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진 『교장총록』본 대교를 위해 아직 공개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현존하는 『교장총록』 목록을 발굴하고 교감을 통한 정본화(定本化) 연구의 지속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장본의 기초 전수(全數)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실물 서지가 이루어졌다.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고 본 연구에서는 목록에 수록된 1,010부를 기준(料를 분리하지 않은 일반 부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기초 전수 조사 및 실물 서지 조사 현황

구분	권수	책수	부수		건수	기관
			일반	科분리		
기초 전수 조사	4,742	-	382	395 ⁷⁾	1,523	119
실물 서지 조사	3,965	2,957	270 ⁸⁾	277 ⁹⁾	681	43

전수 조사에는 『교장총록』, 『원종문류』 등의 의천찬서(義天撰書)와 참고사료 그리고 교장본과 관련된 장소 34부¹⁰⁾를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기초 전수 조사 책수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치는 제외하였다. 또 건수 현황은 소장처에서 실물 서지를 조사한 장소 단위로 1부 1종의 장소가 여러 기관에 책이나 권 단위로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종이 아닌 건수로 측정하였다.

전방위 기초 전수 조사를 위해 연구서류는 『고려속장조조고(高麗續藏雕造攷)』¹¹⁾ 및 『순천송광사장고려관천순판불전(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¹²⁾과 관련 기관 도록 등을 조사하였다. 목록류는 일본은 『고야산현존장경목록(高野山現存藏經目錄)』, 『고려판간기오서목록(高麗版刊記與書目錄)』, 『고산사자료총서(高山寺資料叢書)』와 중국 『국가진귀고적명록도록(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중국고적선본서목(中國古籍善本書目)』 등이 활용되었다. 또 국내·외 온라인 목록¹³⁾과

5) 임혜경,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박용진,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서지학연구』 67(2016. 9), 177-207.
 7)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문헌 총람』 II p.1245 377부에서 현장록 18부가 확인되어 추가한 수치.
 8) 子瑿述 『楞嚴經義疏注經科』는 상위 장소 없이 과문만 확인되어 일반 장소 부수에 포함하였다.
 9)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30부를 포함하면 실물서지조사 과분리 종수는 307부이다.
 10) 홍왕사 간기가 있지만 목록에 없는 『교장총록』 미수록본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 『顯密圓通成佛心要』 2부를 포함한 기타 관련 장소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引教詳義直解』, 『華嚴一乘教義分齊章義苑疏』, 『釋摩訶衍論記』, 『龍龕手鑑』, 『法華文句輔正記』, 『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科』, 『科註妙法蓮華經』 등.
 11)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東京: 便利堂, 昭和12(1937)).
 12) 조선고적연구회,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京城]: 조선고적연구회, 昭和13[19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일본의 전국한적데이터베이스(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¹⁴⁾와 신일본고전적종합데이터베이스(新日本古典籍總合データベース),¹⁵⁾ 국립국회도서관데이터컬렉션(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¹⁶⁾ 일본 대학의 전적 이미지 DB,¹⁷⁾ 중국의 불교장경목록수위자료고(佛敎藏經目錄數位資料庫) DB¹⁸⁾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고려대장경』 초조와 재조에 수록된 교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¹⁹⁾ DB와 불교학술원 통합대장경²⁰⁾ DB를 활용하였다. 국외 대장경 확인은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등 현장록 대장경 DB²¹⁾를 확인하여 국내 및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가 유통되어 전래되었던 교장본을 비롯해 후대 판각 인본과 사본 전체를 조사한 것이다.

2.1 정부 유통본과 조사본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의 가장 큰 분류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설한 경장(經藏),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계율을 모은 율장(律藏), 경장과 율장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해설을 위해 주석을 달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논장(論藏)의 3가지이다. 이 3가지의 주제의 분류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변하지 않는 분류법이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의 분류를 단계로 살펴보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로 『교장총록』에서는 경은 권1에 율은 권2에 론은 권3으로 구분되어 불교분류법과 동일하다. 2단계의 구분은 1단계에서 구분된 기준 아래에 의천의 교학관에 입각한 장경(藏經)을 배치하고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이자 장경에 대한 분류로 볼 수 있다. 3단계로 의천의 주석서 분류는 3가지로 구분되어 첫 번째 내용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로 나열되며 교학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전반부는 교학을 익히는 입문, 개론서의 성격이라면 후반부는 수행서 및 목록,

-
- 13) 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②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기록유산 원문 검색(<http://www.heritage.go.kr/heri/mem/selectSearchList.do?>)
- 14)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전국한적데이터베이스)(<http://kanji.zinbun.kyoto-u.ac.jp/kanseki/>)
- 15) 日本古典籍總合目錄データベース(일본고전적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http://base1.nijl.ac.jp/~tkoten/>)
- 16)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일본국립국회도서관디지털컬렉션)(<http://dl.ndl.go.jp/>)
- 17) ①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電子貴重書庫(<http://repo.komazawa-u.ac.jp/retrieve/kityou/02-kicho.html?tm=1569393965168>)
 ② 와세다대학 도서관 고전적 종합 데이터베이스(http://www.wul.waseda.ac.jp/kotenseki/index_en.html)
 ③ 교토대학 전자도서관 귀중자료(<http://edb.kulib.kyoto-u.ac.jp/exhibit/index-s.html>)
 ④ 게이오대학 도서관(<http://dcollections.lib.keio.ac.jp>)
 ⑤ 규슈대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s://catalog.lib.kyushu-u.ac.jp/opac_browse/rare/?lang=1)
- 18) 佛敎藏經目錄數位資料庫(불교장경목록수위자료고)(<http://jinglu.cbeta.org/>)
- 19) 高麗大藏經 지식베이스(<https://kb.sutra.re.kr>) 2019년 9월자로 DB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 20)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 21) ① CBETA 佛典集成(씨베타 전자불전집성)(<http://www.cbeta.org/>)
 ② 佛學規範資料庫(불교규범자료고)(<https://authority.dila.edu.tw/>)
 ③ SAT大正新修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http://21dzk.l.u-tokyo.ac.jp/SAT/>)

음의, 전기류 등의 참고서류가 분류되어 있다. 두 번째로 시대적으로 조사순으로 분류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분류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3단계로 살펴기엔 부수가 많기 때문에 1단계인 경전명을 기준으로 수록교장의 유통본과 조사본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²²⁾은 <표 4>와 같다.

<표 4> 경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

경전명	『교장총록』 수록 교장		유통본 현황		조사본 현황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책수	권수
(01)大華嚴經	177	1,270	69	328	54	149	731	1,239
(02)大涅槃經	30	207	14	34	11	20	109	125
(03)毘盧神變經	4	33	2	19	2	8	46	69
(04)法華經	61	236	32	135	27	74	201	288
(05)楞伽經	11	46	5	3	1	1	2	4
(06)首楞嚴經	27	174	5	53	4	16	130	262
(07)圓覺經	18	94	11	71	7	35	101	155
(08)維摩經	19	141	9	31	5	8	49	88
(09)金光明經	25	86	8	7	3	3	12	17
(10)仁王經	12	48	6	18	6	10	44	65
(11)金剛般若經	29	73	12	37	7	18	43	66
(12)般若理趣分經	7	10	1	1	1	1	3	3
(13)大品般若經	1	3	1	2	1	1	2	2
(14)般若心經	19	32	6	27	4	9	20	29
(16)金剛三昧經	2	10	1	4	1	3	6	12
(17)勝鬘經	3	7	2	2	1	1	2	2
(22)解深密經	2	10	1	5	1	3	27	37
(27)觀無量壽經	15	24	8	28	4	7	12	31
(28)大無量壽經	3	3	2	18	2	5	6	19
(29)小阿彌陀經	19	31	7	23	4	6	8	26
(31)彌勒上生經	9	23	4	7	2	4	8	11
(32)彌勒下生經	5	7	1	0				0
(34)彌勒經	2	7	1	1	1	1	1	1
(35)藥師經	7	12	1	7	1	6	8	12
(38)四十二章經	4	6	1	1	1	1	1	1
(39)溫室經	1	1	1	1	1	1	1	1
(40)盂蘭盆經	15	25	5	16	3	8	12	21
(42)無常經	3	10	1	1	1	1	1	1
(43)天請問經	2	4	1	1		0	1	1
(44)請觀音經	3	3	2	4	2	4	4	4
합계	561	2,719	220	885	158	404	1,591	2,592

22) 실전(失傳) 경부: (15)六波羅蜜經, (18)不增不減經, (19)諸法無行經, (20)般舟三昧經, (21)思益經, (23)無上依經, (24)大寶積經, (25)本生心地觀經, (26)文殊說般若經, (30)稱讚淨土經, (32)彌勒下生經, (33)彌勒成佛經, (36)灌頂經, (37)方廣經, (41)報恩奉盆經, (45)消災經, (46)八大菩薩曼陀羅經

경부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본은 220부이고 실물 서지를 한 조사본은 158부 404권 1,591책 2,592권이다. 전체 교장총록 경부 장소와 비교하여 유통본 현존율은 39.2%이나 실물 조사는 28.2%가 이루어졌다.

2.2 율부 유통본과 조사본

『교장총록』에 수록된 1,010부가 93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본은 현존율은 39.8%이다. 율장부 교장 유통본 또한 경장부 및 논장부와 비슷한 현존율을 보이고 있다. 상위 율장에 나타나는 율전은 정확한 상위 율전명이 나타나는 7종과 상위 율전이 없는 장소 44부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율전 주석서는 사분율 장소로 58부 306권이며 다음으로는 범망경으로 장소로 25부 51권으로 확인된다. 유통본과 조사본 또한 『교장총록』 구성 비율과 현존 부수 비율이 유사하다. 『교장총록』 수록 율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²³⁾은 <표 5>와 같다.

<표 5> 율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

경전명	『교장총록』 수록 교장		유통본 현황		조사본 현황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책수	권수
(01) 梵網經	25	51	9	63	8	32	57	98
(02) 瓔珞本業經	1	3	1	2	1	1	1	2
(03) 地持經	1	10	1	1	0	0	0	1
(04) 佛遺教經	9	12	1	1	1	1	2	2
(05) 四分律	58	306	23	70	16	27	133	205
(08) 기타 율소 ²⁴⁾	44	82	17	61	14	30	50	111
합계	142	469	52	198	40	91	243	419

『교장총록』 권2에 수록된 율부 장소는 142부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본은 52부이고 실물 서지를 한 조사본은 40부 91권 243책 419권이다. 전체 교장총록 율부 장소와 비교하여 유통본 현존율은 36.6%이나 실물 조사는 28.2%가 이루어졌다.

2.3 논부 유통본과 조사본

논장부(論藏部) 대승론(大乘論)·소승론(小乘論)에 수록되어 있다. 상위 논장에 나타나는 논전은 율장과 같이 정확한 상위 율전명이 나타나는 36종과 상위 논장이 없는 장소 88부가 수록되어 있다.

23) 실전(失傳) 율부: (06)十誦律, (07)五分律

24) 毗尼討要, 關中創立戒壇圖經, 淨心誠觀法, 淨心誠觀發真鈔, 釋門章服儀, 量處輕重儀, 釋門歸敬儀, 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 道宣律師感通錄, 釋門集僧軌度圖經, 衣鉢名義章, 新受戒比丘六念五觀法, 佛制比丘六物圖, 釋門自鏡錄, 慈悲道場懺法 (교장총록 수록순)

가장 많은 논장 주석서는 대승기신론의 장소로 34부 88권이나 다음으로 많은 성유식론 주석서는 29부 266권으로 권수로 3배가 많은 것이 확인된다. 또 논장 맨 마지막에 배치된 기타류에는 천태종(天台宗), 삼론종(三論宗), 법상종(法相宗), 화엄종(華嚴宗), 정토종(淨土宗) 계통의 개별로 연구된 장소가 배치됨이 확인된다. 또한 그 다음으로 『속개원석교록(續開元釋教錄)』, 『법원주림(法苑珠林)』,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 『대송고승전(大宋高僧傳)』, 『승사략(僧史略)』 등 교학을 배우기 위한 목록(目錄), 음의(音義), 승사(僧史), 전기류(傳記類) 등의 다양한 장소들까지 편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교장총록』 수록 논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²⁵⁾은 <표 6>과 같다.

<표 6> 논부 유통본과 조사본 현황

경전명	『교장총록』 수록 교장		유통본 현황		조사본 현황			
	부수	권수	부수	권수	부수	권수	책수	권수
(01)大乘起信論	34	88	12	100	11	43	130	227
(02)釋摩訶衍論	6	31	4	30	2	20	70	90
(03)成唯識論	29	266	7	40	6	19	166	192
(04)百法論	14	69	2	2		0	1	3
(05)因明論	27	98	9	22	5	5	11	36
(06)正理門論	2	2	1	1	1	1	1	1
(07)瑜伽論	19	227	5	17	3	10	198	289
(11)雜集論	2	20	1	1	1	1	1	2
(12)中邊論	3	6	1	1		0		1
(13)唯識二十論	1	1	1	1				1
(17)法界無差別論	1	1	1	6	1	3	3	6
(18)中觀論	5	16	1	1		0		1
(21)十二門論	1	1	1	2	1	1	1	2
(24)十地經論	1	14	1	1				3
(25)法華論	3	7	1	3	1	2	6	7
(26)遺教經論	2	2	2	2	1	1	4	4
(29)俱舍論	19	92	5	24	3	7	69	111
(30)順正理論	2	7	1	0		0		
(32)異部宗輪論	1	1	1	2	1	2	4	4
(33)肇論	10	22	4	6	2	2	2	9
(34)寶藏論	2	4	1	3	1	2	3	3
(37)기타 론소 ²⁶⁾	88	583	48	175	32	71	453	739
합계	307	1,692	110	440	72	190	1,123	1,731

25) 실전(失傳) 논부: (08)五蘊論, (09)顯揚論, (10)攝大乘論, (14)成業論, (15)觀所緣論, (16)掌珍論, (19)百論, (20)廣百論, (22)三論, (23)大智度論, (27)阿毘曇論, (28)大毘婆沙論, (31)雜阿毘曇心論, (35)十四科, (36)九識章

26) 原人論發微錄 2부 외 모두 1부 法界次第初門, 大乘義章, 大乘法苑義林章, 大乘法苑義林章決擇記, 二諦章, 十門和諍論, 諸法無諍三昧法門, 摩訶止觀, 摩訶止觀科文, 止觀輔行傳弘決, 止觀輔行搜要記, 刪定止觀, 止觀義例, 止觀大意, 修習止觀坐禪法要, 觀心論, 觀心論疏, 釋禪波羅蜜次第法門, 天台智者大師禪門口訣, 六妙門禪法, 方等三昧行法, 釋摩訶般若波羅蜜經覺意三昧, 四念處, 四教義, 略明開矇初學坐禪止觀要門, (圓教六即), 天台八教大意, 國清百錄, 天台四教儀, 天台四教儀科, 天台四教儀集解, 天台法數, 重編天台諸文類集, 原人論, 念佛三昧寶王論, (直指淨土決疑集), 淨土往生傳, 唐護法沙門法琳別傳, 法苑珠林, 一切經音義, 續一切經音義,

『교장총록』 권3에 수록된 논부 장소는 307부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본은 110부이고 실물 서지를 한 조사본은 72부 190건 1,123책 1,731권이다. 전체 교장총록 유통본 장소와 비교하여 유통본 현존율은 35.8%이나 실물 조사는 26.7%가 이루어졌다.

3. 간인이 확인된 교장 현황

2장에서 살펴본 유통본의 현존율 34%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중국, 일본 각국에서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가 유통되어 전래되었던 모든 장소로 교장본을 비롯해 후대 간본 및 사본 전체의 비율이다. 즉 의천시대에 의천과 관련된 판각처에서 판각된 교장본 뿐만 아니라 그 판본들이 유통되고 전래되어 파생된 다양한 장소 인본의 동아시아 전체 『교장총록』 수록 장소의 현존율인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의천시대에 간인이 확인된 교장의 현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서지 실물 조사를 한 현존본 중 의천시대 간인이 확인된 교장의 기준은 홍왕사 원간기가 있는 교장본과 의천이 의뢰하여 수입된 송진수 판각본 등 판각 사실이 정확한 교장본 뿐만 아니라 홍왕사 원간기를 가진 번각본과 필사본을 포함하였다. 또 홍왕사 원간기는 없으나 교장본이 저본임이 확인되는 장소와 간행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는 간기 및 간행처 추정 전거가 부족하지만 인쇄 상태, 자형 등 형태서지적 분석과 사상, 배경 등에 나타나는 기록을 기준으로 그 근간인 교장본의 후인본임이 확인되는 여러 계통의 간사본도 포함하였다.

간인이 확인된 교장은 권1에는 15부 경장에 대한 교장 47부,²⁷⁾ 권2에는 4부 율장에 대한 교장 5부, 권3에는 14부 논장에 대한 교장 24부이다. 현재까지 간인이 확인된 『교장총록』 수록 교장은 76부 147건²⁸⁾으로 <표 7>과 같다.

<표 7> 『교장총록』 수록 간인 교장 현존 부수

(교장총록 수록순)

구분	경전	현존부수(A)	합계	건수	총록부수(B)	현존율(A)/(B)
권1 경(經)	01_大華嚴經	17	47	54	177	9.60
	02_大涅槃經	3		3	30	10.00
	03_毘盧神變經	1		5	4	25.00
	04_法華經	7		7	61	11.48

宋高僧傳, 大宋僧史略, 北山錄, 輔教篇, (右繞行道正儀章), 右旋行道破邪顯正義 (교장총록 수록순)

27) 권수는 전질이 현존되지 않는 장소와 단편간간이 다소 있어 측정을 생략하고자 한다.

28) ① 잔편단간으로 현존하는 교장은 유전의 의미로 볼 때 가치가 있기에 조사 대상에 넣었으나 권수로 수치에 넣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건수로 계산하였다. ② 거질의 장소는 영본(零本)으로 여러 기관에 나눠 소장된 경우가 발생하여 기관별 소장 건수로 취합되었다. ③ 해인사 목판이 남아 있는 전권의 장소는 후인본으로 다양한 소장처에 현존본으로 소장되어 있기에 건수로 취합하였다.

구분	경전	현존부수(A)	합계	건수	총록부수(B)	현존율(A)/(B)
	06_首楞嚴經	1		1	27	3.70
	07_圓覺經	6		15	18	33.33
	08_維摩經	1		1	19	5.26
	09_金光明經	1		1	25	4.00
	10_仁王經	2		2	12	16.67
	11_金剛般若經	3		4	29	10.34
	13_大品般若經	1		1	1	100.00
	14_般若心經	1		1	19	5.26
	16_金剛三昧經	1		3	2	50.00
	29_小阿彌陀經	1		1	19	5.26
	42_無常經	1		1	3	33.33
권2 율(律)	01_梵網經	1	5	1	25	4.00
	03_地持經	1		1	1	100.00
	05_四分律	2		5	58	3.45
	34_慈悲懺法	1		1	44	2.27
권3 론(論)	01_大乘起信論	6	24	8	34	17.65
	02_釋摩訶衍論	2		11	6	33.33
	03_成唯識論	3		3	29	10.34
	05_因明論	1		1	1	3.70
	07_瑜伽論	3		3	19	15.79
	11_雜集論	1		1	2	50.00
	29_俱舍論	1		2	19	5.26
	33_肇論	1		1	1	10.00
	46_十門和諍論	1		1	88	27.27
	48_四教儀	1		1		
	67_唐護法沙門法琳別傳	1		1		
	69_法苑珠林	1		3		
	70_一切經音義	1		2		
71_續一切經音義	1	1				
총록 미수록 장소 ²⁹⁾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 顯密圓通成佛心要	1 1	2 4			
합계	33 (35)	76 (78)	76	147 (153)	1,010 (1,012)	7.52 (7.71)

이상과 같이 살펴본 『교장총록』 전체 1,010부 중 간인이 확인된 현존본은 삼장 33부에 수록된 교장 76종으로 현존율은 7.52%이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간인이 확인된 교장은 권1의 경장 15부에 수록된 교장 47부 100건, 권2는 율장 4부에 수록된 교장 5부 8건, 권3은 논장 14부에 수록된 교장 24부 39건으로 확인된다. 전체 경·율·론 삼장 33부에 수록된 교장은 76부 147건이다. 76부 중 각 권의 현존 구성 비율은 권1의 경부는 61.8% 권2의 율부는 6.6% 권3의 논부는 31.6%이다. 현존본 대비율과 구성 비율은 <표 8>과 같다.

29) 홍왕사 간기가 있지만 『교장총록』에 수록되지 않은 미수록본 2부.

<표 8> 현존본 대비율과 구성 비율

구분	교장총록		유통본			조사본			교장		
	부수	구성비	부수	대비율	구성비	부수	대비율	구성비	부수	대비율	구성비
권1	561	55.5%	230	41.0%	58.2%	162	28.9%	58.9%	47	8.4%	61.8%
권2	142	14.1%	53	37.3%	13.4%	40	28.2%	14.5%	5	3.5%	6.6%
권3	307	30.4%	112	36.5%	28.4%	73	23.8%	26.5%	24	7.8%	31.6%
전체	1,010	100.0%	395	39.1%	100.0%	275	27.2%	100.0%	76	7.5%	100.0%

구성비는 『교장총록』, 유통본, 조사본의 비율이 비슷하게 확인되나 교장의 구성비는 율장부 권2의 구성비가 월등이 낮아지고 그 수치를 경장부 권1에 수록된 교장의 비율이 증가됨이 확인된다. 『교장총록』 수록 장소 대비 간인이 확인된 교장 현존율과 유통본 전체 현존율의 차이는 31.6%이다. 대비율을 통해 해동에 유통되던 의천이 수집한 장소의 산실율이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유통본의 현존비율과 교장의 현존 비율의 간극은 간인된 교장이 중국과 일본에서 중간과 필사를 통해 유통과 전승된 정황이 파악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의천의 교학관에 입각하여 작성된 『교장총록』의 교학관은 산실된 주석서와 같이 유전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3.1 경부 교장본

1권 경부(經部)는 모두 대승경(大乘經)의 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교장총록』 권1의 경부에는 46개의 장경에 수록된 교장은 561부 2,719권으로 전체 55.5%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간인이 확인된 경부 교장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간인이 확인된 경부 교장본 현황

장경번호	경전명	현존부수	현존건수	교장부수	현존율
1	大華嚴經	17	54	177	9.60%
2	大涅槃經	3	3	30	10.00%
3	毘盧神變經	1	5	4	25.00%
4	法華經	7	7	61	11.48%
6	首楞嚴經	1	1	27	3.70%
7	圓覺經	6	15	18	33.33%
8	維摩經	1	1	19	5.26%
9	金光明經	1	1	25	4.00%
10	仁王經	2	2	12	16.67%
11	金剛般若經	3	4	29	10.34%
13	大品般若經	1	1	1	100.00%
14	般若心經	1	1	19	5.26%
16	金剛三昧經	1	3	2	50.00%
29	小阿彌陀經	1	1	19	5.26%
42	無常經	1	1	3	33.33%
합계	15	47	100	561	8.38%

『교장총록』 전체 1,010부 중 경부 장소 대비 현존 비율은 8.4%이다. 전체 현존 교장 경부의 구성 비율은 61.8%이다. 권1의 경장부에서 나타나는 경장은 『화엄경』, 『열반경』, 『비로신변경(대일경)』, 『법화경』, 『수능엄경』, 『원각경』, 『유마경』, 『금광명경』, 『인왕경』, 『금강반야경』, 『대품반야경』, 『반야심경』, 『금강삼매경』, 『소아미타경』, 『무상경』의 주제를 가진 경장 15부로 경장부에 수록된 교장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교장총록』 권1 수록의 국내외 간인 교장 현황

(교장총록 수록순)

경전순서	경전명	장소순서	장소번호	장소명	찬자	건수	합계
1	大華嚴經	5	0005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智儼	2	54
		6	0006	花嚴經探玄記	法藏	1	
		13	0013	大方廣佛花嚴經疏	澄觀	4	
		16	0016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澄觀	7	
		20	0020	貞元新譯華嚴經疏	澄觀	4	
		26	0026	大方廣佛華嚴經疏	淨源	19	
		28	0028	花嚴經論	靈辨	2	
		29	0029	新華嚴經論	李通玄	1	
		30	0030	大方廣佛華嚴經合論	志寧	2	
		43	0043	[摘要鈔(法界觀式鈔)]	遵式	1	
		80	0080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智嚴	4	
		81	0081	華嚴五十要問答	智嚴	1	
		87	0087	華嚴經旨歸	法藏	2	
		95	0095	金師子章雲間類解	淨源	1	
		111	0111	大方廣佛華嚴經綱要	澄觀	1	
171	0171	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	閻朝隱	1			
172	0172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崔致遠	1			
2	大涅槃經	3	0180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習空	1	3
		13	0190	大槃涅槃經疏	法寶	1	
		21	0199	金剛錚顯性錄	智圓	1	
3	毘盧神變經	3	0210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	覺苑	5	5
4	法華經	4	0215	法華文句記	湛然	1	7
		7	0218	妙法蓮華經贊述	慧淨	1	
		9	0220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鈔	詮明	1	
		19	0230	法華玄論	吉藏	1	
		20	0231	妙法蓮華經玄義	智者	1	
		51	0261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思孝	1	
55	0265	弘贊法華傳	惠詳	1			
6	首楞嚴經	8	0291	首楞嚴義疏注經	子璿	1	1
7	圓覺經	2	0312	大方廣圓覺經大疏科	宗密	1	15
		3	0313	圓覺經大疏釋義鈔	宗密	2	
		4	0314	大方廣圓覺略疏註經	宗密	8	
		7	0317	圓覺道場修證	宗密	2	
		8	0318	圓覺經禮懺略本	宗密	1	
		13	0323	圓覺經玄議	德素	1	

경전순서	경전명	장소순서	장소번호	장소명	찬자	건수	합계
8	維摩經	2	0330	淨名經集解關中疏	道液	1	1
9	金光明經	3	0350	金光明經文句	智者	1	1
10	仁王經	9	0381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鈔	遇榮	1	2
		12	0384	法仁王護國般若經	淨源	1	
11	金剛般若經	2	0386	金剛般若經略疏	智儼	2	4
		15	0399	金剛般若經義記	知恩	1	
		16	0400	金剛般若經疏開玄鈔	公哲·志蘊	1	
13	大品般若經	1	0421	[大品般若經科]	亡名	1	1
14	般若心經	5	0426	般若波羅蜜多心經疏	法藏	1	1
16	金剛三昧經	1	0443	金剛三昧經論	元曉	3	3
29	小阿彌陀經	2	0480	阿彌陀經通贊疏	窺基	1	1
42	無常經	2	0549	無常經新鈔	省辨	1	1
권1	경장 15부			장소 47부			100건

『교장총록』에 수록된 1번째 배열 경장부터 42번째 배열된 경장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가장 많은 주제는 화엄경류의 교장이다. 이 중 정원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전질이 120권으로 각권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건수로 가장 많은 19건이나 종수로는 1종이다. 그 다음으로 법화경에 대해 주석을 한 교장이 많고 다음은 원각경에 대해 주석을 한 교장이다. 이 3종류의 경전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경전이며 의천 교학의 근간이 되는 교학으로 현존본 현황과 그 연관성이 충분히 이해되는 구성별 결과이다. 비로신변경(대일경)류에 대한 주석을 한 교장은 홍왕사 간기를 가진 일본에 소장된 필사본류와 중간본류이다. 이 장소는 국내에서는 어떤 류의 판본도 확인되지 않은 장소로 국내와 일본의 주석서 현존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장이다. 교장 현존본을 통해 『교장총록』 집성 후 1000여년의 세월 동안 교학적으로 유통된 주석서의 유형을 가늠할 수 있다. 교장본은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 있어 교학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상생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불교 장소 교류는 각국에 현존하지 않던 것을 중심으로 자국에 보충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³⁰⁾

현시점에서 각국에서는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원문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부족한 자료의 보충에 정성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존 경부장소 중에서도 동아시아 어떤 대장경에도 입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만 현존되는 교장은 <표 11>과 같다.

이 중 『대반열반경의기원지초』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사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소장처를 확인할 수 없다. 또 간간단편이기는 하나 동아시아 유일 교장 현존본으로 서지학 및 불교학 등의 유관 학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지 및 원문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30)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2014), 173.

<표 11> 동아시아 유일 '의천교장' 경부 장소

(교장총록 수록순)

번호	장소명	권수	찬자	장정	현재소장처	DB구축
1	[撫要鈔(法界觀式抄)]	권제3 제12-14장	[遵式述]	斷簡	淸涼寺 (경북봉화)	
2	大方廣佛華嚴經綱要	권上-中-下	澄觀述	線裝	高麗大圖書館	2016
3	大般涅槃經義記圓旨抄	권제13-14	釋空撰	線裝	舊송광사/미상	
4	大槃涅槃經疏	권제9-10	法寶述	線裝	松廣寺	2012
5	妙法蓮華經贊述	권제1-2, 5-6	慧淨述	線裝	松廣寺	2012
6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권제1-2	詮明集	線裝	松廣寺	2012
7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三玄圓贊科文	단권	思考科定	線裝	松廣寺	2012
8	圓覺經禮懺略本	권제3-4	宗密述	線裝	淸州古印刷博物館	2012
9	金剛般若經疏開玄鈔	권제4-6	公哲述;志濫刪補	線裝	松廣寺	2013
10	[大品般若經科]	날장3면	[亡名(述)]	斷簡	東國大圖書館	
11	無常經新鈔	권下(1) 반엽7면	[省辨述]	斷簡	松廣寺	

3.2 율부 교장본

2권 율부(律部)는 대소승율(大小乘律)의 장소가 수록되어 있다. 율부에는 상위 율장 7부와 상위 율장이 없는 장소류 44부에 장소 142부 469권이 수록되어 전체 14.1%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현존본은 5세기에 들어와 번역되기 시작한 율장 중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범망경과 사분율에 속하는 장소와 관법에 대한 자비참법 즉 자비도량참법의 4종으로 <표 12>와 같다.

<표 12> 간인이 확인된 율부 교장본 현황

장경번호	장경명	현존부수	현존건수	교장부수	현존율
1	梵網經	1	1	25	4.0%
3	地持經	1	1	1	100.0%
5	四分律	2	5	58	3.4%
8	(律慈悲懺法)	1	1	44	2.3%
합계	4	5	8	142	6.6%

첫 번째 율인 범망경(梵網經)부 수록 교장은 1부 1건으로 4%의 현존율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지지경(地持經)부 수록 교장은 1부 1건으로 현존율은 100%이다. 다섯 번째 사분율(四分律)부 수록 교장은 2종 2건으로 현존율은 3.4%이다. 여덟 번째로는 상위 율장이 없는 기타류 장소의 군집에 속해 있는 자비참법으로 기타류 장소 군집의 전체장소는 44종으로 백분율을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44종을 기타류를 볼 때 현존율은 2.3%이다. 전체 구성 비율은 6.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율장 교학서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2의 율장부에는 『범망경』,

『지지경』, 『사분율』, 『자비참법』의 주제를 가진 율장 4부이다. 각 율장에 대한 주석서는 범망경부 장소 1부 1건, 지지경부 장소 1부 1건, 사분율부 장소 2부 5건, 자비참법 1부 1건으로 종합 율장류 4부, 장소류 5부 8건으로 <표 13>과 같다.

<표 13> 『교장총록』 권2 수록의 국내외 간인 교장 현황

(교장총록 수록순)

번호	경전명	장소순서	장소번호	장소명	찬자	권수	합계
1	梵網經	6	0567	[菩薩戒本持犯要記]	元曉	1	1
3	地持經	2	0588	地持論義記	慧遠	1	1
5	四分律	13	0610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澄淵	3	5
		23	0620	四分律刪繁補隨機羯磨	道宣	2	
34	慈悲懺法		0694	慈悲道場懺法	梁武帝	1	1
권2	율장 4부			장소 5부		8건	

율장부 주석서는 경장부와 논장부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현존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계율인 범망경 주석서는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권 단위가 아닌 간간 단편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사분율은 비구와 비구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율이 제시하고 있는 율장이다. 간인이 확인된 율부 교장은 『교장총록』 수록 첫 번째부터 후반부 기타 율장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중 『사분율산번보결행사초상집기』는 간경도감 분사 중조본으로 어떤 대장경에도 입장 되지 않는 국내에만 있는 교장으로 <표 14>와 같다.

<표 14> 동아시아 유일 ‘의천교장’ 논부 장소

번호	장소명	찬자	권수	장정	현재소장처	DB구축
1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澄淵集	권제1-14(상주목) 권제7만(안동부)	線裝	東國大圖書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國立中央圖書館	2013

『사분율산번보결행사초상집기』는 판목이 해인사에 남아 있어 일본 또한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존 어떤 대장경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나 서지적으로 귀중한 교장이다.

3.3 논부 교장본

3권 논부(論部)는 대소승론(大小乘論) 및 화엄종(華嚴宗), 삼론종(三論宗), 법상종(法相宗) 등의 여러 종파의 장소와 천태종(天台宗)의 관법 관련 장소와 후미에는 목록(目錄), 음의(音義), 승사(僧

史), 전기류(傳記類)로 이루어져 있다. 논부에는 상위 논장 36부와 상위 논장이 없는 장소류 90부에 속한 장소 307부 1,692권으로 전체 30.4%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중 간인이 확인된 경우 교장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교장 현존 논부 장소 현황

장경번호	장경명	현존부수	현존건수	교장부수	현존율
1	大乘起信論	6	8	34	17.65%
2	釋摩訶衍論	2	11	6	33.33%
3	成唯識論	3	3	29	10.34%
5	因明論	1	1	27	3.70%
7	瑜伽論	3	3	19	15.79%
11	雜集論	1	1	2	50.00%
29	俱舍論	1	2	19	5.26%
33	肇論	1	1	10	10.00%
37	(論十門和諍論)	1	1	88	27.27%
	(論天台四教儀)	1	1		
	(論唐護法沙門法琳別傳)	1	1		
	(論法苑珠林)	1	3		
	(論一切經音義)	1	2		
	(論續一切經音義)	1	1		
	14	24	39	307	7.82%

『교장총록』 전체 1,010부 중 논부 장소 대비 현존 비율은 7.8%이다. 전체 현존 교장 논부구성 비율은 31.6%에 이른다. 이 중 16%에 육박하는 유가 장소는 소현을 중심으로 금산사 광교원에서 개판되어진 것이다. 또 유식 사상에 대한 의천이 남긴 기록 중 구사, 유식, 기신, 화엄순으로 교학을 익힐 것을 언급하며 유식사상과 화엄사상의 성과 상은 하늘의 해와 달, 혹은 주역의 건과 곤과 같이 겸학할 것을 권하고 있다.³¹⁾ 현존 교장 또한 유사하게 현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식학과의 주석서들은 미륵·무착·세친·호법 등에 의해 저술된 경·론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의 학생들은 이들 논사들이 저술한 경·론들을 중심으로 유식사상을 수학·연찬하였다는 의미이다.

권3의 논장부 수록 장소 중 현존하는 장소는 14부 교장본 24종으로 『대승기신론』, 『석마하연론』, 『성유식론』, 『유가론』, 『잡집론』, 『구사론』, 『십문화쟁론』, 『사교의』에 대한 주석서와 『당호법사문 범립별전』, 『법원주립』, 『일체경음의』, 『속일체경음의』 등은 주석서의 개념 보다는 사회 및 음의로 권3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교장이 <표 16>과 같이 나타난다.

31) 최중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62(2015. 6), 164-165.

<표 16> 『교장총록』 권3 수록의 국내외 간인 교장 현황

(교장총록 수록순)

경전순서	경전명	장소순서	장소번호	장소명	찬자	권3	합계
1	大乘起信論	1	0704	釋摩訶衍論	龍樹	1	8
		7	0710	[大乘起信論疏]	元曉	1	
		12	0715	大乘起信論義記	法藏	1	
				大乘起信論疏	法藏	1	
		16	0719	[大乘起信論演奧鈔]	延後	1	
		16	0719_2	[大乘起信論演奧鈔科文]	淨源	1	
		17	0720	[大乘起信論疏筆削記]	子璿	2	
2	釋摩訶衍論	1	0738	釋摩訶衍論通玄鈔	志福	4	11
		5	0742	釋摩訶衍論贊玄疏	法悟	7	
3	成唯識論	1	0744	成唯識論述記	窺基	1	3
		2	0745	成唯識論了義燈鈔	惠沼	1	
		5	0748	成唯識論義景鈔	澹凝	1	
5	因明論	7	0793	因明入正理論疏鈔	雲微	2	2
7	瑜伽論	1	0816	[瑜伽師地論略纂]	窺基	1	3
		3	0818	瑜伽論疏	智周	1	
		4	0819	瑜伽師地論義演	清素	1	
11	雜集論	1	0846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玄範	1	1
29	俱舍論	6	0890	俱舍論頌疏鈔	常眞	2	2
33	肇論	10	0917	肇論集解令摸鈔	淨源	1	1
46	十門和諍論	1	0935	[十門和諍論]	元曉	1	1
48	四教儀	26	0962	天台四教儀	諦觀	1	1
67	唐護法沙門法琳別傳		0997	唐護法沙門法琳別傳	彥琮	1	1
69	法苑珠林		0999	法苑珠林	道世	3	3
70	一切經音義		1000	一切經音義	慧琳	2	2
71	續一切經音義		1001	續一切經音義	希麟	1	1
권3	논장 14부			장소 24부			39건

논장부 주석서는 『대승기신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마하연론』이며 『성유식론』과 『유가론』의 비율은 동일하다. 『대승기신론』에 대해 주석한 장소는 주로 잔편단간으로 현존하는 해인사사간장 목판에서 인경한 것이다. 『대승기신론』은 대승 사상의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 불교의 중심 사상을 요약하며 진여 연기설, 즉 여래장(如來藏) 연기설에 대한 논서이다.

교학을 익히기 위한 주석서가 많다는 것은 의천시대 이전부터 핵심이 되는 논서임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간인되고 유통본의 현존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수로 가장 많은 2번째 『석마하연론』은 모두 홍왕사 간기가 있는 일본 필사본과 중간본이다. 장소의 유통과 현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내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교학 장소가 유통되어 연구되어졌고 일본은 『석마하연론』의 교학에 대한 장소가 더 많이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국가별 『대승기신론』에 대한 연구 경향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존 논부 장소 중 어떤 동아시아 대장경에도 입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만 현존하는 교장은 <표 17>과 같다.

<표 17> 동아시아 유일 ‘의천교장’ 논부 장소

번호	장소명	찬자	권수	장정	현재소장처	DB구축
1	[大乘起信論演奧鈔]	[延後述]	권제5 제11-12, 21-22장, 권제7 제25-26장	斷簡	東國大圖書館	
2	[大乘起信論演奧鈔科文]	[延後述]	날장4면	斷簡	東國大圖書館	
3	成唯識論義景鈔	(澹凝集)	권제12(날장4장), 권제19	線裝	松廣寺	2013
4	瑜伽論疏	智周撰	권제35-36	線裝	舊송광사/미상	
5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玄範述	권제13-14	線裝 (紙念)	松廣寺	2013
6	俱舍論頌疏鈔	瓊煦定本; 常眞述	권제1-8	線裝	東國大圖書館 松廣寺	2013
7	[十門和諍論]	[元曉述]	권상 제9-10장, 제15-16장	斷簡	東國大圖書館	2014

7종 중 단간잔편 3종은 해인사 사간전 목관이 수장되어 있고 그 인본이 단간으로 현존하는 장소이다. 단간잔편이기에 DB구축의 가치성과 학문적 사용면에서는 미흡할 수 있으나 ‘의천교장’의 관목이 남아 있는 장소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목록 장소 중 현존하는 교장은 총 76종 147건이며 잔편단간 17종으로 <표 18>과 같다.

<표 18> 권차별 잔편단간 건수

권차	장소명	찬자	간행시기	인출시기	합계
권1	[大方廣佛花嚴經疏]	澄觀	고려	조선후기	1
	[大方廣佛華嚴經疏]	澄觀	고려	고려	1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澄觀	고려	조선후기	1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澄觀	고려	고려	1
	[貞元新譯華嚴經疏]	澄觀	고려	고려	1
	[撫要鈔(法界觀式鈔)]	遵式	고려	고려	1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智嚴	고려	조선후기	1
	圓覺經玄議	德素	고려	고려	1
	[大品般若經科]	亡名	고려	조선후기	1
無常經新鈔	省辨	조선	조선	1	
권1 8부					10종
권2	[菩薩戒本持犯要記]	元曉	고려	조선후기	1
권2 1부					1종
권3	[大乘起信論疏]	元曉	고려	조선후기	1
	[大乘起信論演奧鈔]	延後	고려	조선후기	1
	[大乘起信論演奧鈔科文]	淨源	고려	조선후기	1
	[大乘起信論疏筆削記]	子璿	고려	조선후기	1
	[瑜伽師地論略纂]	窺基	조선	조선	1
	[十門和諍論]	元曉	고려	조선후기	1
권3 6부					6종

17종의 단간잔편은 해인사 사간전에 목판이 수장되어 있다. 단간잔편이라 불교교학 연구나 서지 연구 대상으로는 학문적 가치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교장본 유통 연구나 교장 판본 계통의 변천 확인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교장총록』에 수록된 간인이 확인된 장소의 합은 <표 19>와 같다.

<표 19> 간인이 확인된 교장

구분	경유훈부수	장소부수	소장건수	장소권수	장소책수	잔편단간
권1	15	47	100	361	279	10
권2	4	5	8	57	26	1
권3	14	24	39	310	145	6
소계	33	76	147	728	450	17
미수록	2	2	6	13	13	-
합계	35	78	153	741	463	

4. 맺음말

본 연구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경·유훈·론 삼장의 장소인 유통본 및 조사본의 현황과 간인이 확인된 교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는 ‘고려 교장문헌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통해 『교장총록』에 수록된 현존하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결집을 추진해 왔다.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본 382부 중 여러 가지 이유로 100% 조사되지 못하고 270부의 70.7%만 조사되어 향후 나머지 장소의 실물 서지조사와 유통본의 발굴을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1,010부의 장소에 대한 의천시대 간인된 현존 판본의 비율은 초기 판본 연구자인 대옥덕성의 28부 2.77%였고 그 이후 천혜봉의 연구에서는 32부의 3.16%로 보다 증가하였다. 이에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확인된 판본은 76부의 7.52%로 다소 증가하였다. 교장 비율의 증가는 교장의 완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국내를 비롯한 일본에 소장된 판본들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와 유지 보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실물 서지 조사한 유통본의 가장 큰 특징은 의천 시대에 의천과 관련된 판각처에서 판각된 교장본 뿐만 아니라 교장본의 동아시아 유통과 전래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간사본(刊寫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간사본은 『교장총록』 편찬 당시의 교장의 형태서지와는 다르나 국가 간에 교류되고 연구되면서 불교가 전승되고 교학이 상호 발전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불교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전체 장소 대비 다양한 형태의 유통본 현존 비율로 확인된 『교장총록』에 수록된 주석서의 산실 비율은 62.2%이다. 주석서인 장소가 산실된 것은 의천의 교학관에 입각하여

수집된 불교교학의 유전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장총록』 유통본은 동아시아 국가별 현존 주석서의 경향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의천 이후 생성된 의천 교장 외 불교교학의 주석서인 교장 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불교 교학이 담긴 장소의 흐름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또 실전된 교장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 동일 장소를 비교 대조하여 정본화를 하고 이에 대한 원문입력, 해제, 한글화 작업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불교 체계 연구에 큰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불교 주석서의 한글화를 통해 불교교학 주석서의 대중화는 다양한 불교플랫폼 형성의 새로운 기반이 되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향후 『교장총록』에 수록된 새로운 교장 간본을 지속적으로 찾고 연구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장총록』에 수록되지 못한 주석서와 의천 이후에 생산된 여러 주석서들을 신교장문헌으로 발굴하고 집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유관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불교학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장의 연구와 현존 유통본 조사는 동아시아 불교교학 연구에 있어 교장과 불교 정장과의 교학적 관계, 교장과 교장 외 주석서와의 관계, 교장과 사기(私記)의 관계 연구에 원동력이자 한국불교연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지학, 역사, 철학 등 유관 학문의 다양한 접근과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주석서 빅데이터 누적을 염원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0.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東京: 便利堂, 昭和12(1937).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 서울: 민족사, 1988.

조선고적연구회.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京城]: 조선고적연구회, 昭和13[1938].

[논문]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6(1997). 1-22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2014). 131-173.

박용진.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對校와 校勘 研究.” 『서지학연구』 67(2016. 9). 177-207.

서대원. “교장의 서명에 대한 시고 - 지자대사 저술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67(2016. 9). 209-230.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

학과. 2003.

- 임혜경.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2006.
- 최종남.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장소에 관한 일고.” 『서지학연구』 62(2015. 6). 137-165.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Ae-Lee. 2006. *A Study on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Shinpyeon-jejong-kyojang-chongnok*. Master's Thesis. Dept. of the Buddhist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Choi, Jong-Nam. 2015. “A Consideration on the National Teacher, Daegak Uicheon and the Commentary of Vijñaptimātratā.”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2: 137-165.
- Chōsenjojeokyeonguhoe. 1938. *SuncheonSonggwangsaJangKoryōp'anCh'ōnSoonpanbuljeon*. [Kyōngsōng]: Chōsenjojeokyeonguhoe.
- Kim, Sung-Soo. 1997. “A study on the entry of [Sinpyeon-jejong-kyojang-chonglo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22.
- Kim, Tu-jong. 1980. *Han'guk Inswaekisulsa*. Seoul: T'amgudang.
- Lim, Hye-kyung. 2012. *(The) publication of sinpyeon-jejong-gyojang-chongrok by Uicheon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Master's Thesis. Dep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Ōya, Tokujō. 1937. *Kōrai zokuzō chōzō kō*. Tōkyō: Benridō.
- Park, Yong-Jin. 2014. “The 『Sinpyeon-jejong-gyojang-chongrok (新編諸宗教藏總錄)』 written by Uicheon (義天) and Huayen Commentaries (華嚴章疏) in East Asia.” *Institute of Korean Studies*, 42: 131-173.
- Park, Yong-Jin. 2016. “A Comparative Analysis and Textual Compare of the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7: 177-207.
- Seo, Su jung. 2003. *(A) Buddhist Bibliographic Study on Uichon's Shinpyeon-jejong-kyojang-chongnok*. Master's Thesis. Dept. of the Buddhist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Suh, Dae-won. 2016. “A Study of the Titles in JiaoZang: Based on the Works of the Great Monk, Zhiz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7: 209-230.
- Yi, Yong-ja. 1988. *Han'guk Ch'ōnt'ae sasang ũ chōn'gae*. Seoul: Minjoksa.

